

'죽음의 계곡' 광양 백운산 계곡 또 사망사고

18세 고교생 물에 빠져 숨져
주변에 장비 없어 구조 못해
최근 4년새 익사자 6명 발생
전남도·광양시 안전대책 뒷집

해마다 사망사고가 발생해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광양 백운산 계곡에서 올해도 또 익사자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쫓다니온 18세 고교생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백운산 계곡은 그동안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광주일보 2018년 8월 8일자 6면·2019년 8월 6일자 6면)을 꾸준히 받아왔다는 점에서 광양시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양시의 부실한 안전대책을 관리·감독해야 할 전남도는 안전조치는 뒷전인 채

물놀이 시즌을 앞둔 지난 7월 백운산 계곡을 '전남 추천 관광지'로 선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인명사고를 자초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11일 광양시와 광양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40분께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동곡계곡에서 고교생 A(18)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순천 모 고교에 재학중인 A군은 이날 학교 친구 5명과 여름방학을 맞아 동곡계곡을 찾았다 참변을 당했다. 사고발생지점은 수심 2m가 넘는 곳으로, 평소 수영을 곧잘 했던 A군이 이날 물놀이 도중 갑자기 허우적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군은 혼자서 수영을 하고 있었으며, 주변에 구명환 등 구조장비가 없어 신속한 구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목격자들의 말이다. 친구들은 사고 발생 직후 119에 신고한 뒤 그나마 수영을 조금하는 친구 B군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움직임이 거의 없는 A군

을 건져 올렸으며, 이 과정에서 B군 또한 물에 빠질 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운산 계곡은 매년 익사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광양시의 안전대책은 부실하다 못해 무책임할 정도다. A군의 사고지점에도 출입금지 표시는 있지만 표시만 하나만 설치됐을 뿐, 안전요원이나 인명구조함 등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반면 광양시는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위험 표시판 61개, 인명구조함 29개, 구조장비 33개, 경광등 20개를 설치하고, 휴가철 인·산 1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21곳에 각각 안전요원을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일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인명구조함 등 안전장비는 계곡 인근이 아닌 도로가에 설치돼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안전요원도 상주하지 않았다. 그나마 배치된 안전요원들도 인명구조 전문자

격증 소지자들이 아닌 고령자들로 구성돼 있었다. 총 길이 22km인 백운산 계곡은 수심 2m가 넘는 지점이 41곳에 달한다. 이곳에서 최근 4년간 A군을 포함해 6명이 물놀이를 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에 대해 광양시 담당 직원들은 '안전대책을 마련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일 '백운산 계곡 안전대책이 부실하다'는 광주일보 보도 직후엔 광양시 안전총괄과의 모 간부가 전화를 통해 "나름대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안전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일방적인 보도가 됐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일보 보도 3일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담당자 등이 모두 사고현장에 나가 있어 통화가 불가하다", "인명사고는 사회재난과가 담당부서이니 그쪽하고 통화하라"는 등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민석 기자 mskim@



무슨 소망 담을까? 지난 10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문화제 야행 '동구달빛길' 행사에서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달빛 소망 등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주 학교 친일잔재 교가·조형물 317건

시교육청 9월 중순까지 조사
연내 철거·교체 작업 마무리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 남아있는 친일잔재가 3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중·고교 교가와 교기, 교목 등 학교상징물과 기념비 등에 대한 친일잔재 기초조사를 벌인 결과, 140여개 학교에서 317건의 의심사례가 나왔다. 히말라야사(개일갈나무)와 가이즈카 향나무 등 학교를 상징하는 교목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육일승천기를 연상케 하는 학교 깃발과 친일작곡가가 만든 교가, 일본 양식의 조형물 등도 접수됐다. 광덕고와 대동고를 비롯한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친일작곡가가 만든 교가를 교체

했고, 다른 학교들도 교체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교목과 교화 등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친일잔재 조사와 청산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오는 9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기념비와 건축물, 동상 등 일부는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역사적 장소나 현장을 돌아보는 여행)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전남도교육청의 1차 조사에서 친일잔재로 보이는 조형물과 교가 등이 115건이 확인됐다. 시·도교육청은 세부조사를 거쳐 3·1만세운동 100주년과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인 올해 안에 철거·교체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화순 유가공업체 등 9개 유제품서 대장균 검출

식약처, 판매중단·회수조치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화순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등 전국 8개 업체의 9개 유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구미별미 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경북 풀마실유 가공 영농조합법인) ▲구위꾸위먹는할루미(전북 자연의 꿈) ▲그 남자의 치즈가게

YOGURT(강원도 그남자의 치즈가게·강원도 철원) ▲로쉬유기농 수제요구르트(전북 로쉬치즈) ▲맛나유 플레인요거트(충남 영농조합법인 오구무장) ▲유별난 아빠애 손수가락 플레인 요거트·구워먹는 치즈 할루미(전북 가족사랑 유가공 영농조합법인) ▲원우목장 요구(화순 원우목장) ▲하루500플레인요거트(전북 호호영농조합법인) 등이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9 달뜨기 17:20
해질 19:25 달집 02:34

강릉대비 철저
흐리고 오후까지 가끔 비 내리다 그치겠다.

광주	비	26/32	보성	비	25/29
목포	비	27/31	순천	비	26/32
여수	비	27/31	영광	비	27/31
나주	비	26/31	진도	비	27/30
완도	비	27/30	전주	비	27/32
구례	비	26/31	군산	비	27/33
강진	비	27/30	남원	비	26/31
해남	비	26/31	흑산도	비	25/29
장성	비	26/3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동~남	2.0~4.0	남동~남	1.0~3.0
남부 앞바다	남동~남	2.0~4.0	남동~남	2.0~3.0
남해 앞바다	남동~남	1.0~3.0	남동~남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동~남	2.0~4.0	남동~남	2.0~3.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동~남	2.0~4.0	남동~남	2.0~3.0

◇생활지수

위험: 식중독,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좋음: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5:36 17:26	11:52 --:--
여수	간조	만조
	01:21 13:04	06:59 19:59

◇주간 날씨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	☁	☁	☁	☀	☁	☀
26/34	26/35	26/32	25/31	24/32	23/33	23/33

내일 새벽까지 강풍 동반 20~60mm 비

제9호 태풍 '레키마'(LEKIMA)의 북상으로 광주·전남이 태풍의 간접영향권에 들면서 지역에 따라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 7시를 기해 서해 먼바다에 풍랑경보로 발효했으며, 13일 새벽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20~6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11일 현재 전남 서해와 남부 앞바다 전역에는 풍랑주의보, 전남 10개 시·군(무안·장흥·신안·진도·목포·영광·함평·완도·해남·강진 등)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풍랑·강풍주의보는 12일 밤 해제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중국 해안선을 따라 북상하고 있는 태풍 레키마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비가 시작되고, 이 구름대가 시간당 60~70km 속도로 북북서진함에 따라 광주를 비롯한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고 설명했다. 태풍의 영향으로 12일 오전까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순간풍속 20% 이상의 바람이 불겠으며,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 8m 이상, 남해 먼바다 5m 이상 등으로 높게 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으로 인해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어 항해·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호남고속도로 백양사휴게소 주유소 일시 영업 중단

호남고속도로 백양사휴게소(순천방향) 주유소가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영업을 일시 중단한다. 11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백양사휴게소(순천방향) 주유소는 토양오염 복원공사와 유류탱크·주유기 노후시설개선 공사를 위해 영업을 중단한다. 휴게소와 LPG 충전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공사 기간동안 백양사 IC, 장성 IC 인근 주유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맹의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080-815-8150
※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단 QR코드를 참고하세요

알고 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5대출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4%~4%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 지역경제까지 생각하는 지역특화신업 부활(전주 한지)
-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용 돈는 지원센터 설치
- 군산·거제 등 고을·산입 위기지역 1천여 무담보·무이자 대출
- 3~7세 아동·65세 이상 차제노인 위치알리미 무료 보급
- 65세 이상 조합원 헬스케어 '아부바 효(孝) 에디션'

평생 아부바 신협